

현대 중국어 형용사의 양적 자질 고찰*

— 거리 도상성을 중심으로

邢順和**

< 목 차 >

1. 서론
2. 이전의 현대중국어 형용사 분류
 - 2.1 이전의 중국어형용사 분류 성과
 - 2.2 중국어형용사 양적 분류 기준
3. 현대중국어 형용사의 양적 자질 고찰
 - 3.1 형용사의 양적 자질들
 - 3.2 형용사와 거리 도상성
4. 결론

1. 서론

본고는 현대중국어 형용사를 양적으로 분류하는 데에 있어서의 기준을 정립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기존의 형용사 분류 기준을 재검토했던 후 현대중국어 형용사의 분류를 양적인 관점에서 시도해 보고자 한다.

현대 중국어형용사는 문장에서 술어로 쓰이는 기능을 하는 등 동사와의 공통된 특성에 근거하여 동사의 하위부류 중의 하나로 간주되는 등 동사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여기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과거에는 어휘범주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하였다. 따라서 그 지위가 확고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형용사는

전통문법에서부터 학교문법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어휘범주로서 다루어져 왔으며, 현재에도 물론 학자들마다의 이견으로 논의가 계속되어지고는 있으나, 하나의 어휘범주로 자리 잡고 있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형용사의 다양한 연구 중에는 몇몇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양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형용사의 논의가 있다. 양적인 관점에서 형용사를 다룬 학자들로는 石毓智(1992, 2000), 張國憲(1993, 1996, 2000, 2006), 沈家煊(1995), 李宇明(2000) 등이 있는데, 본 고에서는 이들이 논의한 연구를 살펴보고, Croft&Cruse(2004), 張敏(1998, 2007), 陳忠(2005), 陸丙甫(1988) 등의 연구를 토대로 현대중국어 형용사의 양적 자질 분류를 새로운 각도에서 시도해 보고자 한다.

2. 이전의 형용사 분류

2.1 이전의 형용사 분류 성과

기존에는 통상 형용사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각 어휘의 의미(meaning), 기능(function), 형식(form)의 세 가지를 이용하였다.¹⁾ 그러나 이 세 가지 기준이 일관성 있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중국어의 품사를 분류할 때에는 '기능'이 '형식'이나 '의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한 기준이 나머지 기준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 '형식'이란 형태적 특징, 즉 형태 변화를 말하고 '의미'에 따라 형용사를 정의하면,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언어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端正'과 같이 '단정하다, 단정하게 하다'와 같이 겹품사 어휘의 경우에는 어휘의 의미에 의거하여 품사를 분류하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마지막 '기능'에 의한 구분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문장 내에서 한 어휘가 다른 어휘와 맺는 관계를 일컫는데(남기심·고영근 1989: 55), 예를 들어 형용사는 '很' 등의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수량사는 명사 앞에만 쓰일 수 있다는 사실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각 어휘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휘들의 문장 내에서의 위치에 따른 분류, 즉 문장성분도 기능의 범주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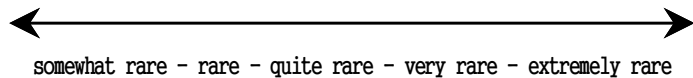
* 이 논문은 2008년 BK21 고려대학교 중일언어문화교육연구단의 지원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高麗大 中日語文學科 博士課程.

또한 중국어는 ‘형식’에만 의거하여 품사를 분류할 경우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므로, 일반적으로는 ‘기능’과 ‘의미’를 모두 고려하여 품사를 분류하고 있다.

기존에 연구된 형용사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어의 경우에 Quirk(1985: 403)은 전형적인 관점에서 형용사를 등급형용사와 비등급형용사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그는 전형적인 형용사가 갖는 주요 자질로 한정적/서술적 기능과 등급성을 들었다. 이 등급성 자질이라는 것은, 즉 전형적인 형용사는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급 및 최상급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very 등의 정도부사에 의해 수식될 수 있으므로, 이는 형용사가 단계적(scalar)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형용사는 선택되는 정도부사에 따라 정도의 연속체상의 어떤 위치에 놓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rare’의 등급성 자질



한편 현대중국어 형용사의 경우에 학자들은 대체로 형용사가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가, 정도개념의 유무, 의미, 구 조합기능에 따라 형용사를 분류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형순화 2006).

<표 2-1>기존의 형용사 분류

형용사 분류기준	형용사분류	학자	하위분류
문장성분	唯謂형용사 (술어로 쓰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葉長蔭(1984)	唯謂형용사
			條件能謂형용사
			非條件能謂형용사
	非謂형용사	呂叔湘(1981)	非謂형용사
		朱德熙(1982)	區別詞
	非定형용사	楊寬仁(1985)	

형용사 분류기준	형용사분류	학자	하위분류	
정도개념의 유무	상대성 형용사	Li&Thompson (1981)		
	절대성 형용사			
의미	형상형용사	申小龍(1988)		
	성질형용사			
	상태형용사			
구 조합 기능	성질형용사	朱德熙(1956)	간단 형식	일음절형용사
	상태형용사		복잡 형식	이음절형용사 형용사중첩 형태

한편 郭銳(2004)는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很[不]- 入*(很- <賓>)’를 삼았고²⁾, 또한 몇몇 학자들은 양적인 관점에서 형용사를 분류한 중국학자들로는 石毓智(1992, 2000), 張國憲(1993, 1996, 2000, 2006), 沈家煊(1995), 李宇明(2000) 등이 있는데, 이 중 石毓智(1991)는 ‘有點兒’·‘很’·‘最’ 세 가지의 정도부사를 사용하여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 세 가지 量의 등급으로 각각 수식할 수 없는 것을 ‘정량형용사’(예를 들면 ‘粉·萬能·雪白’)라 하고, 수식이 가능한 형용사를 ‘비정량형용사’(예를 들면 ‘紅·大·困難’)라고 하였다.³⁾ 石毓智는 또한 이들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는 고정량형용사는 부정을 나타낼 수 없으며, 이 세 가지 정도부사의 수식이 가능한 부정량형용사는 부정사 ‘不·沒(有)’를 사용하여 부정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⁴⁾ 한편 張國憲(1996)은 형용사가 임의의 하나

2) 물론 모든 형용사가 ‘很’ 등의 (절대)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耐煩, 相同, 景氣’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의 부정식은 모두 ‘很’류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데(예를 들면 ‘很不耐煩, 很不相同, 很不景氣’), 郭銳는 이 점이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형용사와 같으므로, 구분 자질에 “[+不]”를 추가하였다. 郭銳(2004).

3) 石毓智(1991)는 형용사의 고정량과 부정량의 성질을 판별할 수 있는 형식기준인 정도사법을 제시하였는데, 이 정도사법이 강조하는 것은, 형용사가 量의 척도선상에서 증가하는 幅度이며, 오직 하나의 형용사가 ‘有點兒’, ‘很’, ‘最’ 세 개의 量의 등급에 의해 구분될 수 있어야만 그것이 부정량이라는 것을 판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그러나 石毓智(2001)가 예로 든 부정을 나타낼 수 없는 고정량형용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冰冷(얼음같이 차다)·通紅(새빨갰다)·雪亮(눈처럼 빛나다)’ 등이 있다. 그러나 중국

의 객관량정도부사를 선택할 수만 있으면 부정량형용사로 간주하였다. 또한 李宇明(1996, 1997)은 인지 의미의 관점에서 형용사 ‘量’ 문제를 설명하였다.

2.2 형용사 분류의 기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학자들은 형용사가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가, 정도개념의 유무, 의미, 구 조합기능 등에 따라 형용사를 분류하였다. 또한 몇몇 학자들은 양적 특징에 따라 형용사를 분류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현대중국어 형용사를 양적인 관점에서 분류할 것이지만, 기존의 분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양적 특징에 따라 분류한 대표적인 학자인 李宇明(2000:245)은 성질형용사의 절대등급과 상태형용사의 절대등급을 합하여 모든 형용사의 절대등급을 나누었고, 張國憲(1993:5)은 형용사의 ‘量’을 비교하는 참조를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으로 나누어⁵⁾ ‘객관량’과 ‘주관량’으로 정도부사를 매김으로써 ‘客觀量’형용사와 ‘主觀量’형용사를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분류에서 정도부사의 양급기준으로 제시된 주·객관량 정도부사의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양급 기준 또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분류 기준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형용사를 부정량형용사와 고정량형용사로 나누고⁶⁾, 이러한 전제 하에 중국어 형용사의 양적 자질을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표 2-2> 형용사의 양적 자질

	[+등급성]	[+비교성]	[+대립성]	[거리도상성]
부정량형용사 ([+성질])	+(정도부사)	+	+	근접 (명사로부터)
고정량형용사 ([+상태])	±(정도부사)	±	-	비근접 (명사로부터)

아래에서는 위의 표 <2-2>에서 제시한 이러한 형용사의 양적 자질들을 간단히 검토하고, 이러한 자질들이 형용사와 어떠한 상관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다 세밀하게 관찰하여, 향후 다루게 될 현대중국어 형용사의 양적 분류에 앞서 바탕이 되는 이론적 기저를 세우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현대중국어 형용사의 양적 자질을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들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현대중국어 형용사의 양적 자질 고찰

3.1 형용사의 양적 자질들

3.1.1 [+등급성]

Paradis(2001)는 형용사의 경계성을 의미론적으로 통합시키고자 이러한 형용사가 가지는 경계성이 중요함을 논의하였다. 그는 형용사의 경계성은 등급(gradability)과 관련한 기본적인 성격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Paradis는 정도수식어구와 그 형용사 사이는 관계가 매우 자연스러우므로 형성의 방식으로 정도수식어구는 형용사의 분류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⁷⁾

7) 영어의 형용사는 등급형용사와 비등급형용사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어의 비등급형용사도 ‘daily newspaper’ 일간 신문, ‘classical ballet’ 전통적 발레 등과 같이 등급성(gradability)

어에서는 일반적으로 감정색채가 [+褒揚性]형용사는 ‘有點兒’로 수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從容-慌張(침착하다-허둥대다)’, ‘美麗-醜陋(아름답다-옴모나 모양이 추하다)’, ‘清潔-骯髒(깨끗하다-더럽다)’ 등의 예 중에서 전자들은 [+褒揚性]형용사에 속하는데, 이들을 ‘有點兒’로 수식하면 ‘조금 침착하다’, ‘조금 아름답다’, ‘조금 깨끗하다’ 등과 같은 의미가 되어 이해하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겠으나 어쨌든 매우 어색한 느낌이 든다. 이러한 이유로 ‘정도사범’으로 긍정성형용사와 비긍정성형용사로 구분하는 것은 신뢰성과 보편적용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5) 형용사의 ‘量’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참조점을 이용하는 것 또한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겠다.
6) 형용사의 부정량고정량형용사 분류에 대해서는 형순화(2006)를 참조.

일반적으로 중국어 형용사의 의미자질은 정도부사와의 공기 가능여부에 따라 [+성질]과 [+상태]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형용사와 정도부사가 자연스럽게 공기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체로 [+성질]형용사는 정도부사와의 공기관계가 자유로우나 [+상태]형용사는 공기관계에 제약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중국어 형용사와 정도부사의 결합이 서로 간의 의미의 동질성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준다.⁸⁾

먼저 각기 다른 量의 등급을 지닌 정도부사를 [+상태]형용사에 대치한 다음의 예문을 보자.

- (1) * 他喝一點兒酒臉就很通紅。
- (2) * 屋子多年沒粉刷，稍微灰溜溜。
- (3) * 這條路十分筆直的。

위의 예문에서 [+상태]형용사인 ‘通紅·灰溜溜·筆直’⁹⁾ 등은 각기 다른 量의 등급을 지닌 정도부사와의 공기관계에 있어 모두 제약을 받는다. 이는 [+성질]형용사가 정도부사와 자연스럽게 공기되는 것과는 대조되는데, 이러한 공기제약의 원인은 피수식어가 [+상태성]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질]형용사가 사물의 속성이나 성질을 나타내며 판단성의 어법의미를 가지는데 반하여, 이 [+상태]형용사는 상황이나 상태에 대한 묘사성의 어법의미를 가진다는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이것은 朱德熙(1982)가 설명한 [+성질]의 의미특성을 지니는 형용사가 단순히 속성을 나타내는 데에 반해 [+상태]의 의미특성을 지니는 형용사는 뚜렷한

묘사성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성질]형용사와 각기 다른 정도부사가 공기하여 정도를 나타내는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¹¹⁾

- (4) 這種鋼筆最好。 이런 종류의 만년필이 제일 좋다.
- (5) 這個菜太賤。 이 요리는 너무 달다.
- (6) 這個東西相當貴。 이 물건은 상당히 비싸다.

한편 張國憲(1993:5)은 형용사의 ‘量’을 비교하는 참조를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으로 나누어, 이성적인 판단의 비교를 통해 얻은 ‘量’을 형용사의 ‘客觀量’이라고 하고, 비교를 통해 얻어낸 ‘量’을 형용사의 ‘主觀量’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객관량’과 ‘주관량’으로 정도부사를 나누었는데, 이들을 각각 ‘객관량을 나타내는 정도부사’와 ‘주관량을 나타내는 정도부사’라 칭하고, 각 정도부사의 등급을 주·객관량으로 각각 微量 - 中量 - 高量 - 極量 으로 매겼다. 물론 모국어 화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張國憲(1993)의 분류가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으나 그의 분류에서는 정도부사의 양급기준으로 제시된 주·객관량 정도부사의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양급 기준 또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급의 분류 기준으로는 다소 부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李宇明(2000:245)은 성질형용사의 절대등급과 상태형용사의 절대등급을 합하여 모든 중국어형용사의 절대등급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a) 超極급 (“極”등+Ax의 중첩식)
- b) 極급 (“極”등+Ax)
- c) 超非常급 (“非常”등+Ax의 중첩식)
- d) 非常급 (“非常”등+Ax, 상태형용사의 중첩식)
- e) 相當급 (“相當”등+Ax, 상태형용사와 그 兒화 형식, 정도가 가중된 Ax의 중첩식)
- f) 參照급(Ax)
- g) 較급 (“較”등+Ax, 정도가 경감된 단음절 Ax의 중첩식)
- h) 點급 (“有點”등+Ax, 정도가 경감된 단음절의 중첩식의 兒화형식)

과 전혀 연관이 없으므로, 이것들은 정도 수식어구와 공기하지 않는다(?a very daily newspaper매우 일간 신문, ?an absolutely daily newspaper정말 일간 신문, ?a fairly classical ballet 꽤 전통적 발레). Paradis(2001)

8) 이는 결국 피차간의 비교적 세밀한 의미특성을 고려한 분류를 통하여 그 공기양상을 분석할 때 비로소 유용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음을 말해준다.

9) 즉 위의 예문(1)에서 ‘通紅’은 ‘새빨갳다’라는, (2)의 ‘灰溜溜’은 ‘어두침침하다’라는, (3)의 ‘筆直’은 ‘(붓처럼)매우 곧다’라는 등의 [+상태]의 의미특성을 각각 내포하여 고정된 자체량을 지니고 있으므로 또 다시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10) 陸儉明(1992)은 이러한 어법의미의 차이와 함께 양자가 구성할 수 있는 문장성분의 차이 ‘很’이나 ‘不’와 공기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른 차이 등에 따라 [+상태]형용사를 ‘상태사’로 달리 분류하였다.

11) 허성도(2005)참고.

이러한 李宇明的 형용사의 절대 등급의 정도상의 배열은 ‘超極급>極급>超非常급>非常급>相當급>參照급>比較급>點급’과 같다. 그러나 李宇明的 등급 분류 역시 각 절대등급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그 경계가 불분명하며, 중국어형용사의 양적 특징을 논의하기 위한 자질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형용사와 정도부사와의 공기관계가 아닌 보다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몇몇 자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1.2. [+대립성]

한 쌍의 반의어가 나타내는 정도를 구분하는 것은 그다지 간단하지 않다. 실제로 한 전형적인 쌍의 반의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두 개의 척도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영(0)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척도화 된 속성의 모든 가능한 값을 포함하는 절대적 척도와 절대적 척도에 상대적으로 이동 가능하고 그 값들이 그 반의적 쌍의 항들과 직접 연관될 수 있는 상대적 척도 long : short를 예를 들어 보자. 이 항들은 어떤 일정한 길이나 심지어 일련의 길이들에도 할당될 수 없으며, 그들이 나타내는 값들(절대적 척도상의)은 그들이 적용되는 모든 지시 대상물에 대해 변한다(예를 들면 ‘a long/short river’, ‘long/short eye-lashes’ 등). (Cruse 1986:255)

J. Lyons(1977)에 따르면 부정량형용사의 용법은 만약 명시적이지 않다면, 암묵적이라도 항상 등급화를 포함한다. 원형적인 부정량형용사들이 갖는 두드러진 자질 중의 하나는 바로 이들이 ‘大/小, 好/壞, 高/低, 容易/難’ 과 같이 반의어의 쌍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¹²⁾ 이들 형용사들은 척도를 지시하며, 이것이 양극화될 수 있

12) Lyons(1968: 463-4)가 제시한 반의어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Cruse 1986:252)
 ① 그들은 완전히 등급 매겨질 수 있다(이들의 대부분은 형용사이고 일부는 동사이다).
 ② 한 쌍의 요소들은 길이, 속도, 무게, 정확성 등과 같은 가변적인 속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③ 한 쌍의 요소들은 더 강하게 강화될 때, 말하자면 관련된 가변적 속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상의 대립방향들로 이동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very heavy와 very light는 무게의 척도상에서 fairly heavy와 fairly light 보다 더 넓게 분리된다.
 ④ 한 쌍의 항들은 한 영역을 엄격하게 양분하지 않는다. 대립되는 항들에 의해 차지되는 값들 사이에 놓여있는 일련의 가변적 속성의 값들이 있는데 이들은 두 항 중 어느 항에

다는 점에서 이러한 반의어의 존재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반의어에 대조적인 모든 형용사는 고정량을 가진다.

Hoffman(1987)등은 부정량 반의어에 대하여 극단(extremes)으로 향한 반의어는 양극단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Croft & Cruse(2004:169-192)는 반의어의 단일 단계의 개념을 버리고, 다음과 같은 두 단계의 척도 도식을 구분하였다. 그 중 하나는 전형적으로 양화적인 측정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단계들이고(‘이 줄은 10cm이다’), 다른 하나는 속성이 어떤 지시값 보다 많거나 적은 것으로 보여 지는 상대적인 단계들이다(‘이 줄은 길다/짧다’).¹³⁾¹⁴⁾ 그러나 어떤 체계이든지 간에 이 반의어 단계는 대응되는 형용사가 이해되는 것에 관한 부호화되지 않은 ‘중간점(middle point)’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간점들은 참조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고정량형용사는 객관적으로 해석된 형용사의 해석만을 포함하는 반면 부정량형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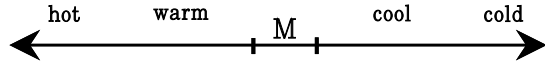
의해서도 정확하게 지시될 수 없다. 그 결과로 반의어 쌍의 한 요소를 내포한 진술은 나머지 한 항을 내포한 평행한 진술과 반대의 관계를 이룬다. 그러므로 It’s long과 It’s short는 모순대조의 진술이 아니고 반대의 진술이다.

13) ① 절대적 척도(absolute scale)- 예: ‘이 줄은 10cm이다’
 이 10cm라는 길이는 언제, 어디서나 고정적이며, 누구에게나 변동 없는 객관적 길이로서 절대적 척도상의 한 점에 위치한다.
 ② 상대적 척도(relative scale)- 예: ‘이 줄은 길다/짧다’
 ‘길다/짧다’는 어떤 고정된 일정한 값과 대응시킬 수 없는 상대적 길이 표시어인데, 이는 이 길이가 경우에 따라서는 길다고 평가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다고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상대적 척도는 절대적 척도상에서 그들이 적용되는 모든 지시 대상물에 따라 변한다. Cruse(1986:205)

14) 또한 이들은 더 나아가 반의어 단계의 유형들을 아래의 네 체계로 나누었다.
 ① 단일 단계 체계(Monoscalr)- short와 long
 · 단일 체계는 ‘하위(sub)’ 용어 보다는 절대적인 값과 좀 더 어울리는 ‘상위(supra)’ 관점을 가진다(long).
 예를 들면, 질문 ‘how long?’은 편견이 없는 반면, ‘how short?’는 그 길이가 지시점 보다 낮음을 제한한다.
 ② 분리된 동치 체계(Disjunct equipollent)- cold와 hot
 · 그 두 아이터들은 모든 면에서 대칭적으로 쓰이는데, 그들 둘 다 그들의 단계들을 가지며, 두 단계들은 ∅점에서 만난다. 두 아이터들은 절대적인 해석과 상대적인 해석에 쓰일 수 있다(how cold/ hot is it?)
 ③ 평행 동치 체계(Parallel equipollent)- hard와 soft
 · 가 단계들이 ∅점에서 만나지 않고, 서로 완전히 겹친다.
 ④ 겹침 체계(Overlapping system)- good과 bad
 · 두 단계들 사이가 오직 부분적으로 겹침이 있다. 이 단계의 오직 한 예가 평가 형용사 쌍 good- bad 인 것으로 보인다.

는 주관적으로(암묵적인) 해석되는 참조점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Lehrer(1985)는 한 쌍의 형용사뿐만 아니라 세 개 혹은 네 개의 형용사들이 하나의 척도를 정의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ot'와 'warm'은 양의 무대칭적 분포로 각기 다른 가치를 나타낸다. 즉 'hot'은 'warm'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온도의 범위를 가리킨다. 반면에 대칭적 분포의 양은 정보의 상세함이나 한정성을 나타낸다. 무언가가 따뜻하다고 할 때에는 중립 온도 보다 높은 온도를 나타내고 중립온도는 맥락에 따라 결정된다.¹⁵⁾ 가령 '내 손이 따뜻하다'고 한다면, 기대했던 것 보다 손이 더 따뜻하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장갑을 썼을 때보다 따뜻하다거나, 혹은 다른 맥락으로 현저한 기준보다 더 따뜻하다는 의미가 된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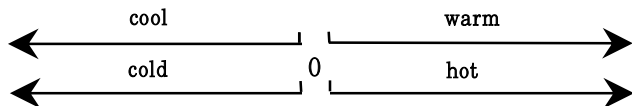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우리는 부정량형용사들 간의 대립을 크게 세 가지의 유

15) Lehrer(1985)가 제시한 반의형용사에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중립성의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의문문의 무표 성분에 의한 대립어의 중립성(How tall/*short are you?)
- ② 명사화의 무표 성분에 의한 대립어의 중립성(warmth/*coolth)
- ③ 무표 성분만이 측정 구에 사용된다.(three feet tall/*short)
- ④ 한 성분에 접사가 부가되어 대립어가 형성되면 접사 형태는 유표이다.(happy/unhappy)
- ⑤ 비율은 무표 성분으로만 사용된다.(twice as old/*young)
- ⑥ 평가와 관련해서 무표 성분은 긍정적이고 유표 성분은 부정적이다.(good/bad)
- ⑦ 양과 관련해서는 많은 양을 나타내는 성분이 무표이고, 적은 양을 나타내는 것이 유표이다.(big/little)
- ⑧ 무대칭 함의가 있다면 편견이 적고 언질되지 않은 것이 무표 성분이다.

(X is better than Y: X may be good or bad. X is worse than Y: X must be bad(not good))

16) 이에 대하여 Cruse(1986)는 cool, warm, cold, hot의 경우, 두 개의 분리된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熱·冷'류 형용사인데, 가장 주관적이다. 이는 정신적-물리적 사실에 가장 밀접하게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원시적이다. 예컨대 더위와 추위는 생리학적으로 별개의 감각이지만, 언어학적으로 '熱'와 '冷'은 그들 자체의 별개의 척도상에 작용한다.¹⁷⁾

두 번째는 '長·短'류 형용사인데, 객관적으로, 가장 고도로 개념화되고 있는 그대로의 정신적-물리적 사실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重·輕', '快·慢', '難·容易'등). 이들은 평가상 중립적·객관적으로 기술, 즉 대부분의 경우 기저의 척도 매겨진 속성은 인치, 그램 또는 시속과 같은 전통적인 단위들로 측정될 수 있다.

세 번째는 '好·壞'류 형용사인데, 이들은 중간적 위치에 놓인다. 이에 속하는 '干淨·臟' 등은 의미의 일부로 평가적 양극성을 가지는데, 한 항은 좋은 것을 나타내고, 다른 한 항은 나쁜 것을 나타낸다.¹⁸⁾

3.1.3. [±비교성]

安井稔(1976:257-263)은 비교(comparative)는 일반적으로 무엇인가의 의미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그 차원에 있어서 무엇과 무엇이 서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는 것이므로 비교의 차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점이 아니고 폭을 가진 '척도(scale)'라고 하였다. 따라서 형용사의 비교구문들이 취하는 척도가 다르면 그것들의 의미에도 차이가 생긴다고 할 수 있겠다(정인수 1998:68-69). 따라서 본고에서는 비교구문을 형용사의 양 표시 방법의 하나인 대상으로 하여, 도출되는 형용사의 양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비교구문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의미

17) 특수하게 주관적인 감각이나 감정, 또는 '객관적' 기준이라기보다는 주관적 반응에 근거한 평가를 나타낸다.

18) 모든 언어에는 형용사처럼 길이, 온도, 美, 장점, 유쾌함 등과 같은 속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립어들의 쌍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일부 언어에서는 다른 언어에서 보다 상대적 형용사들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더 고도로 개념화되어 있을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일부 熱·冷류 형용사와 많은 好·壞류 형용사가 비교적 '주관적'인 것이다. Cruse(1986:273-275)

자질인 ‘정도성(gradability)’이라는 것은 관련 속성을 얼마만큼 지니느냐에 따라 대상의 순서가 매겨지는 특성을 말하는데, J. Lyons(1977:271)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순서 매기기(grading)’ 자체가 곧 비교(comparison)와 관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비교구문을 통해 비정량형용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정도성(量)을 구현해내는 데 직접적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의 예문들을 보자.

- (7) a. 小李跟小張一樣高。 小李는 小張와 같이 크다.
 b. 小李比小張高。 小李는 小張에 비해 크다.
 c. 小李沒有小張那麼高。 小李는 小張처럼 그렇게 크지 않다.

위의 예(7a)는 동등비교로 사물·성상의 같고 다름만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小’와 ‘小張’의 키가 같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7b)는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7c)는 ‘A沒有B那麼……’의 형태로, A와 B의 사물이 비교될 때, B를 표준으로 삼고 A가 B의 정도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어휘의미 자체에 고유한 상대성이 있는 형용사들, 예를 들면 ‘高’, ‘長’, ‘好’ 등의 특징은 명시적으로 비교급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들 형용사가 지니는 고유한 상대성으로 인해 비교적으로 해석된다는 점이다.¹⁹⁾ 예를 들어 ‘這個很長’이라는 문장은 그 대상이 다른 대상에 비해 길다거나 혹은 화자가 바라던 것 보다 더 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예외 없이 비교구문에 출현 가능하며, ‘很’ 등의 정도부사와 공기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의 상대적 의미는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비교될 수 있으며, 가상의 척도상의 어떤 지점을 차지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這個多少長?’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질문의 대답으로 ‘這個很長’에서처럼 척도상의 어떤 특정한 범위를 지적하거나, ‘這個比那個長’에서처럼 판단의 근거로 어떤 명시적인 비교의 기준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내현적으로 비교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長’ 등과 같은 부정량형용사와는 달리, 고정량형용사는 이미 자체가 어떤 고정된 정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

19) 더 주목할 만한 것은 부정량형용사가 갖는 자질을 살펴보면, 비교구문에서 ‘比’의 뒤에 출현하는 형용사는 대부분이 긍정형이라는 것이다.

도부사와의 공기는 불가능하지만, 언어 환경(맥락)에 따라 비교구문에는 출현할 수 있다(Kennedy & McNally 1999: 167).

石毓智(1996)는 형용사가 나타내는 것은 추상적인 성질이며, 각 종류의 성질은 정도의 높고 낮음을 구분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인접한 두 개의 정도간은 그 경계가 모호한데, 다시 말해 형용사는 정도상 하나의 모호한 집합이기 때문에, 형용사의 ‘量’을 확실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비교가 필요하다. 정확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참조가 필요한데, 이 참조점(參照點)²⁰⁾이 달라지면, ‘量’의 서술도 달라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각 상황에 맞추어 각기 다른 量의 등급을 가진 정도부사를 선택하게 된다.

張國憲(1993)은 일반적으로 형용사의 ‘量’을 비교하는 참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는데, 하나는 객관사물을 참조하여 비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화자 마음속의 모종의 기준을 참조로 하는 것이다. 전자는 雙項비교일 수도 있고, 多項비교일 수도 있다. 이러한 비교는 지극히 객관적인 것인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8) 這幢樓比那幢樓高。
 이 빌딩은 저 빌딩 보다 높다
 (9) 我們班小劉比小張高。
 우리 반의 小劉는 小張보다 크다

위의 예와 같이 이성적인 판단의 비교를 통해 얻은 量을 형용사의 ‘客觀量’²¹⁾이

20) 參照點(reference point: R)은 어떤 것에 주의를 향할 때에 그 표지가 되는 존재물을 가리킨다. 이를테면 소유표현에서 ‘개의 꼬리’라고 했을 경우, ‘개’를 참조점으로 삼아서 그 일부인 ‘꼬리’에 주의를 돌리게 된다. 우리에게 참조점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인지적 능력이 갖추어져 있으며, 그 능력이 여러 가지 언어 표현(환유, 인상구문, 대명사의 조응관계 등 다수)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 Langacker(1993, 1995)나 van Hoek(1995)에 제시되어 있다. 가와가미 세이사쿠(1997)

21) 주관량과 객관량이라는 것은 화자의 입장의 차이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먼저 술어 등에 의해 표현되었던 어느 속성의 절대적인 정도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정도의 대소·강약 등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는 비교성이 없는 주관적인 경우이며, 이러한 경우에 나타내는 量이 바로 주관량이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대상과 비교를 한다는 것은 비교의 대상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경우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나타내는 量은 바로 객관량이다.

라고 한다. 화자 마음속의 모종의 기준을 참조로 하는 후자는 비교할 때에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혼재되어 있으며, 항상 모종의 감정색채를 지닌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0) 茶太濃了。
차가 너무 진하다.
- (11) 天氣有點兒熱。
날씨가 조금 덥다.
- (12) 這本書有點兒貴。
이 책은 조금 비싸다.

위의 예에서와 같이 비교를 통해 얻어낸 ‘量’을 형용사의 ‘主觀量’이라고 한다. 위의 예문 ‘這本書有點兒貴’를 보자. 실제로 이 문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이 책의 가격에 대해 어떻게 여기는가의 여부는 상관없이, 단지 화자의 심리 참조에 근거하여 주관적 느낌을 얻어냈다. 비교하려는 것이 객관량이든 주관량이든, 이것들이 형성될 때는 모두 그 특수한 정도부사를 이용하여 표기한다. 이 정도부사는 피수식어의 정도를 더하거나 덜어버리거나 혹은 부정하는 자질을 지닌다는 특징과 동일한 위치에 출현하는 정도부사의 교체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짐에 착안하여, 여러 학자들이 통사·의미론적인 연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등급설정 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3.2 형용사와 거리도상성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개념인 이 ‘도상성’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속성적 닻음에서 추상적인 관계적 유추에 이르는 다양한 정도의 추상에서 형태(구조)와 의미 사이의 사상(Lakoff & Turner 1989 참조)을 가리킨다(Hiraga 2005:72). 본고에서는 형용사간의 거리도상이 만약 형용사가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의 거리라면, 이를 거리도상이라고 볼 것이며, 이 거리도상이 현대중국어 형용사의 객관량과 주관량을 나

누는 자질임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朱德熙(1957)는 遞加관계의 다항 한정어의 어순에 대해 세 가지 규칙으로 개괄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陳忠 2005:631).

첫 번째, 만약 다항 한정어가 ‘的’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어순은 다음과 같다.

소속을 표시하는 명사 또는 대명사: 형용사: 성질을 표시하는 명사

두 번째, ‘的’를 수반하는 한정어에서, 소속을 표시하는 명사 또는 대명사는 여전히 가장 앞에 온다.

세 번째, ‘的’를 수반하는 한정어는 일반적으로 ‘的’를 지니지 않는 한정어 앞에 놓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3) a. 他的一把小瓷茶壺
- b. 張三的兩個破墨水瓶
- c. 綉花的絲綢衫

그러나 陳忠(2005:631)은 위의 세 번째 규칙에는 많은 예외가 있다고 하였다. 그가 제시한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 (14) a. 他是編輯部最老的編輯
- b. 這是我們學校一天的活動計劃
- c. 他家裏剛買的電視機

위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的’의 분포위치 및 그 隱現은 간단한 통사 규칙으로 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듯 통사영역 내부에서는 정확한 해석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기능과 인지방면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Haiman(1985)은 영어의 명사구 어순을 분석했는데, 어순이 경험모식에 잠복해

있으므로, 이 모식이 각종 수식어의 다른 위치를 결정한다고 여겼다. 이는 즉 명사구에서 중심어의 기능은 한 유형의 사물을 가리키며, 수식어의 기능은 다른 각도에서 이 사물에 대해 묘사를 한다는 것인데, Haiman은 이러한 명사구의 경험구조의 어순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지시 - 수량 - 태도품성 - 경험품성 - 類別 - 사물

또한 Haiman(1983)은 소위 ‘거리 도상성’에 대하여 언어성분간의 거리는 표현하는 개념 성분간의 거리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이는 즉 개념상 거리가 가까운 성분은 결국 통사 분포 형식상 서로 가깝게 된다는 것인데, 서로 다른 성분간의 의미거리가 가까울수록, 서로간의 의존성은 점점 강해지며, 반대로 양자간의 의존성이 낮아질수록, 그 의미거리는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張敏(1998)은 ‘거리 도상성’에 따라 먼저 각종 한정어를 개념의 각도에서 아래와 같이 크게 ‘指別表量(specification)’유형과 ‘狀物定性(characterization)’유형으로 나누었다.

(A) ‘指別表量(specification)’유형

- (A1) 指別류
- (A2) 表量류

(B) ‘狀物定性(characterization)’유형

- (B1) 狀物류 - 臟兮兮的衣服 破破爛爛的衣服 厚厚的書
- (B2) 定性류 - 臟衣服 破衣服 男同學 好書 英文書

형용사는 위의 분류에서 (B)유형에 상당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狀物류’는 상태형용사가 한정어로 쓰이는 경우인데, 여기에서 형상화하는 묘사는 중심어 사물의 상태이고, 이런 상태는 왕왕 주관평가하는 결과이며, 일반적으로 말해 사물은 비교적 임시적·비본질적인 상태이다. 이에 반해 ‘定性’류는 성질형용사 및 구별사, 그리고 비소속성의 명사가 한정어로 쓰이는 경우인데, 여기에서 중심어는 사물의 어떤 방향의 속성을 확정하는 작용을 한다. ‘狀物류’와 비교해 보면 ‘定性’류

는 왕왕 비교적 안정적이고·비교적 본질적인 성질을 나타내는데, 주관평가의 의미 또한 조금 약하다. 張敏은 ‘狀物定性(characterization)’류 한정어에서 ‘狀物류(B1) 한정어와 중심어의 개념간의 거리는 ‘定性’류(B2) 한정어와 중심어의 개념거리 보다 크다고 하였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狀物류(B1) 한정어, 중심어 > ‘定性’류(B2) 한정어, 중심어

또한 그는 형용사가 나타내는 것은 중심어의 크기(‘大, 小, 長, 短’ 등) - 질량(‘好, 坏’ 등) - 냄새와 맛(‘甜, 臭’ 등) - 색깔(‘白, 紅’ 등) 등 방향의 속성이라 하였는데, 張敏(1998)의 형용사 분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A1	크기1	大, 小	가장 널리 적용되고, 또한 사람의 주관판단에 가장 의지한다.
A2	질량	新舊老嫩破爛好壞 美醜...	주관판단의 색채가 더욱 강함
A3	감각	酸恬苦咸辣香熱 冷...	주관판단의 색채가 더욱 강함
A4	크기2	長, 短粗細高矮深 淺...	單一維向(one-dimensional)의 크기인데, 더욱 주관 판단에 의지한다.
A5	색상	黑白紅綠黃藍...	비교적 견고한 속성이지만, 색깔지각은 형상지각 보다 조금 강한 주관 색채를 수반한다.
A6	형상	方圓斜歪正平直...	사물이 비교적 견고한 속성이고, 사람의 주관 판단에 의해 크게 정의되지 않는다.

이들이 다항한정어식에서 연용 되면, 중심어와의 언어 거리는 대체로 A1에서 A6까지의 순서대로 증가하는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小臟手(A1 > A2), 生咸鴨蛋(A3 > A4), 厚白紙(A4 > A5), 紅圓桌子(A5 > A6)

상태형용사성의 한정어	狀物류 한정어	반드시 ‘的’ 필요	臟兮兮的衣服
성질형용사성의 한정어	定性류 한정어	‘的’ 필요없음	臟衣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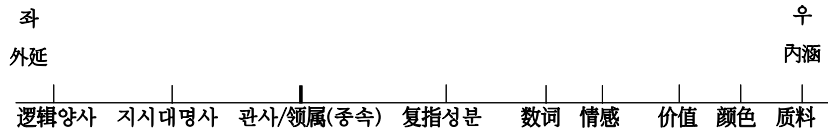
張敏(1998)은 또한 ‘狀物’한정어와 중심어의 개념거리는 ‘定性’한정어보다 크며, 이 ‘的’자의 내현 규칙도 ‘거리 도상성’의 설명에 부합한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張敏(1998)은 한정어 관계의 거리 도상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Seiler의 이론을 이용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陳忠(2005:620-641)

한정 성분의 기능	
확정 지칭	묘사 개념
주요 개념의 외연에 작용	주요 개념의 내포에 작용

이로부터 한정어는 그 기능에 따라 한정 서열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 한정 서열은 실제로 한정어와 중심어 간의 개념거리에 대응된다.

<그림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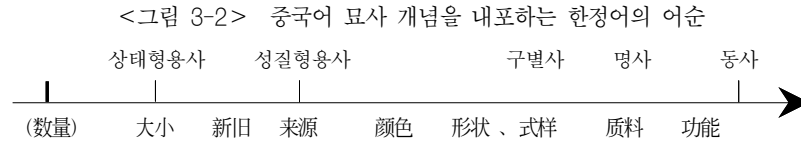
위의 서열은 독일어·영어 등 다항 한정어의 배열 순서와 비교적 일치한다. 이 서열의 좌측은 한정 개념의 외연이며, 우측은 묘사 개념의 내포이다. 즉 좌측으로 갈수록, 중심어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며, 개념거리도 멀어진다. 또한 우측으로 갈수록, 중심어로부터 거리가 가까워지며, 개념거리도 가까워진다.

張敏(1998)에 따르면, 중국어와 영어 한정어 어순의 차이는 전환점의 좌측에서 작용하는 그 부분을 지칭하는 데 있는데, 중국어 전환점의 좌측에서 일어나는 지칭작용의 그 부분의 한정성분의 어순은 다음과 같다.

소속성분- 논리양사- 지칭대명사- 수량사

陳忠(2005:625)은 馬慶株(1985), 陸丙甫(1993), 張敏(1998)과 方希(1999)등이 연구한

결과에 따라 중국어 묘사 개념을 내포하는 한정어의 어순을 다음과 같이 배열하였다.



그러나 陳忠은 한정어의 어순 및 ‘的’의 隱現은 단일 요소의 제약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리동기·범위 크기·현저성·경제원칙·상세도 등 여러 종류의 요소가 함께 제약한 결과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주요제약을 일으키는 것은 ‘거리 동기’이며, 그 다음으로는 ‘범위 크기’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중국어 한정어의 어순 규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는데, 속성·묘사성에 속하는 한정어 성분은 중심어 개념 거리의 원근에 따라 배열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위의 그림 <3-1>과 마찬가지로 ‘大小-新舊-來源-색깔-형상모양-재료-기능’의 순서대로 배열된다고 하였다.²²⁾

- (15) 大屏幕國產彩色立體聲電視機
- (16) 最新進口數碼彩色顯屏多功能手機
- (17) 原裝頂級英式紅茶

그러나 劉月華(2002:475)는 제한성 수량 한정어에는 ‘的’가 출현하지 않으며, 묘사성 수량 한정어의 뒤에는 ‘的’가 출현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거리도상성과 모순이 발생함을 볼 수 있는데, 陳忠(2005:631)은 아래와 같은 예를 제시하여 비교하였다.

22) 陸丙甫(1988:105)에 따르면, ‘的’자를 수반하지 않는 집합식한정어에의 순서는 “시간 - 공간 - 색상외관 - 質料 기능 및 기타” 라고 하였다(예를 들면 ‘新小白木床’, ‘旧小紅寶書’). 그러나 “大”와 “小”와 같이 크기를 나타내는 형용사 ‘tall, small, big, short, long’ 등은 다른 형용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명사를 수식할 때 색깔형용사, 모양형용사(사물의 모양이나 사람 동물의 형상을 나타내는 형용사)보다 앞에 나온다.

(18)

A	B	C	D
買了三斤魚	*買了三斤的魚	買了一條三斤的魚	*買了一條三斤魚
喝一杯啤酒	*喝一杯的啤酒	喝三圓一杯的啤酒	*喝三圓一杯啤酒
穿一雙鞋	*穿一雙的鞋	穿八百圓一雙的鞋	*穿八百圓一雙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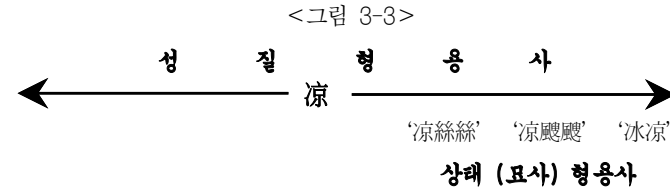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A, B, C, D는 모두 수량성분이 한정어로 쓰였지만, 그 기능은 같지 않은데, 즉 A와 B에서는 제한성 수량한정어로 쓰였고, C와 D에서는 묘사성 수량한정어로 쓰였다. 이것은 거리도상성 이론에 따르면, 묘사성 수량한정어는 제한성 수량한정어에 비해 중심어와의 개념 거리가 가까워서, ‘的’는 오히려 더욱 A와 B 중에 출현하는 경향이 있으며, C와 D 중에 반드시 출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인데, 이는 즉 거리도상성이 ‘的’의 분포와 隱現을 제약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님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에 陳忠(2005:633)은 이것이 詳密度(specificity)의 개념과도 관련된다고 하였는데, 카메라 촬영시에는 초점조정을 통해 경치의 선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실제로 초점거리를 조정함으로써 획득되는 시각정보의 詳密度이다. 즉 사물의 관찰과 묘사가 정교하고 상세할수록, 詳密度는 점점 높아지는데, 언어에서는 수식성분으로서 언어정보의 詳密度를 높일 수 있다. 그 중에 ‘的’는 가장 자주 사용되는 수단으로써, 定中구조의 정보 詳密度를 높이는 통사표지의 하나이며, 이것은 ‘的’가 왕왕 세밀하게 묘사되는 ‘묘사성형용사’ 또는 ‘상태형용사’와 공기하는 인지의 이론적 근거라고 제시하였다.

(19) 雪白雪白的, 熱乎乎的, 熱烘烘的, 熱熱的, 烏黑烏黑的, 冰冷冰冷的, 涼絲絲的……

이러한 詳密度에는 강도 등급이 있다. 성질형용사와 상태형용사의 정보詳密度는 다소 다른데, 정보량 역시 상응해서 다르다.²³⁾

23) 상태 형용사의 구조는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또한 대다수의 성질형용사는 단음절이다. 아래에서 성질형용사의 활성화된 정보는 굵은 선인 것인데, 이것이 표시하는 정도 범위는 매우 넓으며, 경계가 분명치 않은 ‘量幅’이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涼’은 ‘涼絲絲’, ‘涼颼颼’에서 ‘冰涼’의 거의 모든 구역범위를 아우르는데, 이는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보량이 적다. 반면 상태형용사가 활성화된 것은 세목 정보이며, 구체적인 장면의 연상을 쉽게 일으키며, 정보량 또한 비교적 많다. 예를 들어 ‘冰涼冰涼’의 사람들로 하여금 ‘像冰一樣’의 살을 에는 듯한 감각을 느끼게 하는데, 활성화된 것은 감성적 장면과 感知 경험이며, 그것이 제한하는 범위는 ‘涼’보다 적고, 정보량은 ‘涼’보다 많다.²⁴⁾

또한 상태형용사의 구조형식은 성질형용사보다 복잡한데,²⁵⁾ 상태형용사가 표현하는 개념 역시 성질형용사보다 복잡하며, 정보량 역시 성질형용사보다 크므로, 상태형용사는 ‘量點’을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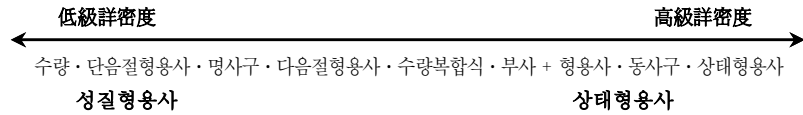
요컨대, 동사·형용사·명사·수량사 등 서로 다른 성분들은 詳密度 등급의 고저에 따라 서열을 매길 수 있다.

- A. 단음절 형용사 중첩식: 慢慢地 등
- B. 쌍음절 형용사 중첩식: 乾乾淨淨(的) 등
- C. ‘雪白’류: 煞白·冰涼·通紅 등
- D. 後綴을 지니는 형용사: 黑乎乎·髒裏呱唧·灰不溜秋 등
- E. ‘정도부사+형용사+的’: 很大的, 挺漂亮的 등

24) 陳忠(2005:635)

25) 상태형용사는 성질형용사의 중첩형식이거나, 성질형용사에 기타성분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상태형용사의 구조형식은 성질형용사보다 복잡하다. 복잡 도상성의 원칙에 따라, 구조형식의 복잡한 정도는, 도상 개념영역이 구현하는 사물의 복잡정도이다. 개념 영역이 구현하는 사물특징 및 그 관계가 점점 복잡해질수록, 그것의 구조형식 역시 복잡해진다. 陳忠(2005:635)

<그림 3-4>



위의 詳密度서열에 따르면, 다한정어(여러 개의 한정어)구조에서, 만약 명사구 한정어와 단음절형용사 한정어가 동시에 출현한다면, ‘的’는 우선적으로 명사구 한정어 다음에 출현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0)

A	B	C	D
早晨的紅太陽 山坡上的綠草地	*早晨紅的太陽 *山坡上綠的草地	早晨火紅的太陽 山坡上碧綠的草地	*早晨的火紅太陽 *山坡上的碧綠草地

A, B, C, D는 모두 다한정어구조인데, 동시에 명사구 한정어와 단음절형용사 한정어에 출현하였다. ‘的’의 출현은 서로 다른 한정어의 詳密度 등급을 결정한다.²⁶⁾ 요컨대 한정어의 詳密度가 높을수록, ‘的’는 이 한정어의 뒤에 출현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다한정어 구조에서 만약 명사구 한정어와 단음절형용사 한정어가 동시에 출현한다면, ‘的’는 우선적으로 명사구 한정어의 뒤에 출현하는데, 만약 명사구 한정어와 다음절형용사 한정어가 동시에 출현한다면, ‘的’는 우선적으로 쌍음절형용사 한정어의 뒤에 출현한다. 또한 주의할 것은 묘사성 한정어의 분포 순서는 개념거리 결정에 따르고, 한정성 한정어의 분포 순서는 각각의 범위크기 결정에 따르며, ‘的’의 분포위치와 내현은 詳密度·음절 수·구분도 결정에 따른다는 것이다.²⁷⁾

또한 陳忠(2005)은 ‘的’는 상태·속성의 詳密度를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묘사적

26) - A에서 ‘紅’은 단음절형용사이므로 ‘的’은 명사구 한정어인 ‘早晨’의 뒤에 출현한다.
 - B의 ‘的’의 분포는 이 규율을 위반하였는데, 구조가 비문이다.
 - C의 ‘火紅’은 쌍음절형용사이므로, ‘的’은 쌍음절형용사 한정어인 ‘火紅’ 뒤에 출현한다. 그러나
 - D의 ‘的’의 분포는 이 규율을 위반했으므로 구조가 맞지 않다.
 27) 陳忠(2005)참고.

인 상태형용사는 반드시 ‘的’를 부가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21) 紅紅的 胖胖的 胖乎乎的 火熱的 熱辣辣的 冰冷冰冷的

즉 ‘的’는 서로 다른 언어 환경에서 다른 기능을 맡지만, 이러한 기능은 모두 詳密度와 관계가 있는데, 묘사성 한정어이던 제한성 한정어이던지 간에 모두 ‘的’로 詳密度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요컨대 陳忠(2005)의 ‘거리도상성’을 근거로 하여, 명사와 근접한 형용사일수록 주관량을 지닌 형용사(성질형용사)에 가깝고, 명사에서 거리가 먼 형용사일수록 객관량을 지닌 형용사(상태형용사)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형용사의 중첩에 관해서도 도상성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는데, Hiraga(1994)는 중첩을 수량도상성(quantity iconicity)의 형식의 하나로 보았는데, 중첩은 형식상 동일성분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의미상 양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첩도상기제도 논의할 가치가 있겠다(張敏 1997 참고).²⁸⁾ 중국어 형용사에서 예를 들면 ‘大大小小, 高高低低’ 등이 있다.

4. 결론

본고에서는 기존의 형용사 분류로 정도 부사와의 공기 양상만을 고집하였던 것에서 탈피하여, 형용사를 [+정도부사]의 자질로 분류함에 있어서 기존 학자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형용사의 양적 분류 자질로 [+성질], [+상태], [+등급성], [+비교

28) Lakoff&Johnson(1980)은 많은 언어에서 중첩이 명사에 출현할 때 단수는 복수 또는 집합개념으로 바뀌고, 동사에 출현하면 동작의 지속 또는 완성을 표시하며, 형용사에 출현할 때 성질 상태의 강화를 표시한다고 하였다. 형용사의 예를 들면 “He is very very very tall”과 “He is very tall”을 비교하면 전자가 나타내는 성질이 더욱 강하다고 하였다. (장민-1997 통사 도상성 번역, 20쪽)

성], [+대립성], [거리도상성] 등을 제시하여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陳忠(2005)의 ‘거리도상성’을 근거로 하여 명사와 근접한 형용사 일수록 주관량을 지닌 형용사(성질형용사)에 가깝고, 명사에서 거리가 먼 형용사 일수록 객관량을 지닌 형용사(상태형용사)에 가깝다고 여기는데, 이러한 거리도상성은 또한 형용사의 의미 자질로서 형용사의 객관량과 주관량을 가늠하는데 있어서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이러한 시도는 지금까지 강조되어 온 언어의 자의성에 대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부여해주며, 언어가 인간의 인지구조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겠다.

이 형용사의 양적 특성은 정도성의 문제로서 가장 원형적인 객관량으로부터 주관량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연속체를 이루며, 각 형용사는 그 연속체상의 어떤 지점에 놓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형용사는 본질적으로 모호하고 불확정적이므로 해석을 할 때에 맥락 의존적이게 한다. 예를 들어 국민적, 언어 습관, 개인의 기호, 태도 주관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발화시점에 놓인 화자와 청자의 심적 태도에 크게 기인하므로, 형용사의 [+주관성]과 양상 그리고 참조점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논의할 가치가 있겠다.

< 參考文獻 >

고영근·남기심(1985·1993), 《표준국어어법론》, 서울: 탑출판사.
 김종호(1996), <현대중국어 정도부사와 술어와의 공기 관계에 관하여>, 《중국연구》 제18권.
 Li & Thompson(1981), 박정구등 역(1996), 《표준중국어어법》, 서울: 한울아카데미.
 서정수(2005), 《한국어의 부사》, 서울대출판부.
 오문의(1994), <현대중국어 형용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劉月華(1983), 최규발 외 옮김(2005), 《實用現代漢語語法》, 송산출판사.
 유현경(1998),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 문화사.
 허성도(2005), 《현대중국어 어법의 이해》, 사람과 책.
 가와가미 세이사쿠(1997), 《인지언어학의 기초》, 한국 문화사.

형순화(2006), <현대중국어 형용사 양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陳忠(2005), 《認知語言學研究》, 山東教育出版社.
 李宇明(2000), 《漢語量範疇研究》, 華中師範大學出版社.
 陸丙甫(1988), 《語法研究和探索(四)》, 北京大學出版社.
 呂叔湘(1984·1999), 《漢語語法論文集》(增訂本), 商務印書館.
 沈家煊(1995), <“有界”與“無界”>, 《中國語文》第5期.
 _____(2000), 《不對稱和標記論》, 江西: 江西教育出版社.
 施關淦(1990), 《名詞動詞形容詞》, 人民教育出版社.
 石毓智(1991), <現代漢語的肯定性形容詞>, 《中國語文》第3期.
 _____(2001), 《肯定和否定的對稱與不對稱》(增訂本), 北京語言大學出版社.
 張國憲(1993), <現代漢語形容詞的選擇性研究>, 上海師範大學博士論文.
 _____(2006), 《現代漢語形容詞與認知研究》, 商務印書館.
 張敏(1998), 《認知語言學與漢語名詞短語》, 中國社會科學出版社.
 _____(2002), <漢語語序按排的時空認知原則>.
 _____(2008), <自然句法理論與漢語語法象似性研究>, 《當代語言學理論和漢語研究》, 商務印書館.
 朱德熙(1956·1985), 《現代漢語語法研究》, 商務印書館.
 _____(1999), 《朱德熙文集》(2), 商務印書館.
 中國語文雜誌社(1988), 《語法研究和探索(四)》, 北京大學出版社.
 Croft, William(2001), Syntactic Categories and Semantic Relativity, *Radical Construction Grammar*Oxford Univ. Press.
 Croft & Cruse(2004), *Cognitive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ruse, D.A.(1986), *Lexical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D.A.Cruse (임지룡·윤희수 옮김), 1989, 《어휘의미론》, 경북대학교 출판부.
 E.Coseriu(허발 엮어 옮김), 1985, 《구조의미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Hiraga, Masako(2005), *Metaphor and Iconicity*, 김동환·최영호(2007), 《은유와 도상성》, 연세대학교출판부.
 Horst Geckeler(장영천 譯), 1989, 《구조의미론과 낱말발 이론》, 집현사.
 Lakoff G., and M.Johnson(1980), *Metaphors We Live By*, C:University of Chicago Press.
 Lehrer, A. (1985), Markedness and antonymy, *Journal of Linguistics* 21: 397-429.

Lyons, J. (1977). *Semantics I*, Cambridge University. Press.

< 中文提要 >

本文旨在确立對現代漢語形容詞從量的角度進行分類時所需要的標準。為此，本文首先對既有的形容詞分類標準作了回顧與檢討，然後試圖立足於量的觀點對現代漢語形容詞進行分類。

本文對既有的形容詞分類中只是拘執於形容詞與程度副詞的共現情態、從形容詞的〔+程度副詞〕性質角度分類的觀點所存在的問題作了分析考察，提出并簡單介紹了作為形容詞量的分類特征的〔+性質〕、〔+狀態〕、〔+等級性〕、〔+比較性〕、〔+對立性〕、〔距離相似性〕等。特別是，根據陳忠(2005)的“距離相似性”，本文認為：越是靠近名詞的形容詞就越接近帶主觀量的形容詞(性質形容詞)，而越是遠離名詞的形容詞也就越接近於帶客觀量的形容詞(狀態形容詞)；而且認為這種“距離相似性”也是衡量作為形容詞意義特征的客觀量與主觀量的一種好辦法。此外，這樣的試圖也使我我們得以從新的視角來觀察至今一直被強調的語言的任意性，并有助於我們確認語言的確反映着人類的認知結構的事實。

關鍵詞：形容詞、等級、比較、對立性、距離相似性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08. 7. 16	2008. 8. 3	2008. 8. 17	2008. 9. 20	2008. 9. 30